

전북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탄력

도, 뉴딜사업 일환 공모사업에 전주·장수 2개소 선정돼 국비 160억원 확보

전북도가 뉴딜사업에 선정돼 새로운 녹색 도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4면>

도는 뉴딜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전주와 장수 2개소가 선정돼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와 장수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접복형 스마트 그린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주와 장수는 지역의 기후·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적·인적·물

적·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지역 솔루션을 제시,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에 선정된 전주시 팔복동, 장수군 일원에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환경문제해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사업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주시는 팔복동 일대에 녹색탄소 ICT 마을숲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스마트 그린에너

지 마을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 구축, 스마트 상수도 플랫폼 구축, 주민환경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청정자연장수를 그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 환경모형을 개발해 맞춤형 스마트 그린 도시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전 국토의 녹색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린·스마트 기술을 확

용한 지역 기반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통한 탄소중립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참신성과 파급성이 큰 사업으로 육성해 지역민이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기관 표창

전북도는 2020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분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공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개방형 주방 개선 및 생활방역 음식문화 정착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분야별 기준평가에 따라 선정했다.

도는 올해 위생등급제 음식점 439개소를 지정, 전년도 138개소 대비 318% 이상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위생등급제 우선구역 39구역, 285개 업소 집중관리, 위생등급제 평가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 160개소 및 매년 실시하는 음식점 위생교육시 위생등급제를 필수 교육으로 포함해 인지도 향상 노력 등 다각적 사업추진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기피 현상에 따라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450여개 음식점에 입식테이블 교체 및 영업장 위생환경 개선 등 시설개선지원을 추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외식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도는 생활방역수칙 준수 음식점 794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음식점 생활방역 비말차단 칸막이 등 코로나 방역물품을 적극 지원 하는 한편, 지도점검을 강화해 음식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전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발굴 추진해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해군장병 격려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연말 국군장병을 위문하기 위해 해군 인천해역방사령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으로 총 736호 달성 '전국 2위'

전북도가 농식품부에서 인증받은 '깨끗한 축산농장'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보유한 지역이 됐다.

도는 29일 올해 깨끗한 축산농가로 269호가 새롭게 지정받아 총 736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부가 인증제도를 시작한 2017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양계농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6호가 지정됐으며, 도내 양계농가의 55%를 차지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 내·외부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농장을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깨끗한 농장 지정 신청 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 총점 70점 이상이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평가에는 축사시설보다 청소상태, 악취발생 등 축사관리에 대한 항목의 비중이 높아 평소 환경개선에 노력한 농장은 큰 어려움 없이 지정 가능하다.

그간 전북도는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농가 사전조사 추진, 인증제도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오는 2025년까지 1,500호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농가는 전문가를 활용해 연 2회 점검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농가는 개선을 지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축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니, 농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2020년 온천산업 발전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도는 온천발전 신고수리 이후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개발온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주민 불편과 피해방지를 위해 현행 온천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공적을 인정받아 2020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장기 미개발온천 정비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온천 전수조사를 실시해 14개소 정비대상 온천을 선정하고, 총괄 정비계획 수립, 환경녹지국장 주재 환경현안회의 개최, 시·군 온천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 본격적인 정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완주군 죽림을 비롯한 화심, 고당, 운주 온천, 순창군 구암온천, 정읍시 목욕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하세요"

전북도, 참여 기업·청년 모집... 총 2100여명 취·창업 지원

전북도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

도는 지역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존해 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모사업에 78개 세부사업이 선정돼 내년도 국비 19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경북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규모로, 내년에 신규 모집 500여 명을 포함해, 총 2,1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

유형별로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력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다양한 역량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정착지원형'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청년 1인당 2년간 월 200만원의 임금과 연 3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직무교육을 3년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추가로 1,000

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며, 임대료나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창업교육 등 1인당 최대 연 1,5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민간취업연계형'은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경력과 직무역량을 쌓게 한 후 민간기업 취업에 발판이 될 수 있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은 디지털·비대면 산업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규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200만원 임금지원과, 연 300만원 상당의 디지털·비대면 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모집공고의 대표적인 세부사업으로 청년에게 우수중소기업 일자리 80개를 제공하는 '청년나래 일자리사업'과 ICT, SW, 홀로그램 등 디지털 산업분야 일자리 200개를 제공하는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군산지역 전기차 생산 관련기업 일자리 138개를 제공하는 '미래형 전기차산업 연계 청년 그린일자리 사업'이 있다.

사업장과 청년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와 시·군, 전북도 일자리종합센터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온천산업 발전분야 대통령 표창

전북도, 장기 미개발온천 일제정비 등 공로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가 2020년 온천산업 발전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도는 온천발전 신고수리 이후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개발온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주민 불편과 피해방지를 위해 현행 온천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공적을 인정받아 2020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장기 미개발온천 정비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온천 전수조사를 실시해 14개소 정비대상 온천을 선정하고, 총괄 정비계획 수립, 환경녹지국장 주재 환경현안회의 개최, 시·군 온천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 본격적인 정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완주군 죽림을 비롯한 화심, 고당, 운주 온천, 순창군 구암온천, 정읍시 목욕리

온천 등 총 6개소를 해체했다.

또한 2020년 6월 중간점검과 시·군 업무협의를 통해 7개소 온천을 개발전환했으며, 이 또한 2021년까지 구체적인 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천법상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명확한 해체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일몰제 신설 건의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해체근거 마련 등 온천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장기 미개발 온천으로 피해받는 도민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도민 소통과 함께 온천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한영**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긴장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편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반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일 양 행

대표 전승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